

영국에 풍요 안겨준 '황금의 술' 실론 차



茶와 불교를 찾아 떠난 스리랑카 ②

동아시아문화연구원 박동춘 소장

스리랑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라는 1월이지만 한낮의 기온은 무려 30도를 넘는다. 아침저녁 바람대는 서늘함도 잠시, 해만 뜨면 한 여름처럼 땀이 난다. 천장에 높이 달린 선풍기가 줄음이 될까 사람처럼 설렁대지만 더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장 무더운 4월에는 무려 40도를 넘는다.

더위야 어떻든 구수하고 향기로운 카레 냄새는 스와벳가아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에서 나는 기분 좋은 냄새다. 입 생생 맥의 주방장격인 여인은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간혹 주방에서 마주 치면 음식은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이것은 어디에 좋단느니,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결코 싫지 않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 태생적이 고도 절대적인 신앙심이 몸에 밴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묘한 힘이 있다.

다음 날, 우리는 콜롬보를 떠나 왓렛가마에 있는 후나스로 떠났다. 콜롬보에서 캔디로, 캔디에서 네 시간 반이나 차를 타야한다니 무려 여덟 시간은 족히 소요되는 먼 곳이다. 더구나 콜롬보에서 캔디로 가는 길은 영국 사람들이 19세기 커피를 운송하기 위해 만든 우마차길로, 커피와 홍차가 될 새 없이 운송되던 역사적인 길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이 길을 지났을 때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길을 지났으며,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마차로, 때로는 해진 신발을 신고서 지났을 이 길을 지금은 자동차로 지난다.

그 뿐인가. 이 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고속도로란다. 하지만 지금의 이 길은 옛 길이 아니다. 오히려 어설피다 못해 실망이 풀린 해진 옷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간간히 도로를 날릴 썸인자, 아스팔트포장길 가장자리를 붉은 황토로 다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다져진 붉은 황토 길과 검은 아스팔트 도로가 대조적인 색조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옛날에도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나무, 물이 고인 늪지엔 어김없이 보라색 수련과 하얀 수련이 피어 있었을 터, 잠시 차를 세우고 인ุต 스칠 꽃향기를 기대했지만 꽃 향은 불전에 공양을 준비하는 지 미동조차 없다.

이러 저러한 풍경을 뒤로 하고 도착한 후나스폴호텔. 한때 영국인의 피서용 방갈로가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방갈로를 개조해 호텔로 쓰고 있다. 아기자기한 작은 규모의 호텔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좌정용 우백호를 완벽하게 구비한 지세와 안산 격인 앞산의 크고 작은 준령은 편안하고 후덕해 보인다. 무려 1400m이상 고지에 위치해 있으니 천상에서 세상을 내려 보는 듯 발아래 펼쳐진 아찔 운해,



무릉가 나무가 있는 차밭. 낮은 차나무 사이에 시원스런 큰 키는 차밭의 공간미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는 대조를 이루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고지대 차산지인 후나스, 캔디, 누와라엘리아, 하부렘페, 수리아 칸다는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대중 음료로 성장시켰다. 립본이 이곳에 머무르며 차를 연구하고 사업을 구상하던 남부 구릉지대인 테니아야 고원 남쪽 1960m에 지금도 '립본의 휴식처'라는 곳이 남아 있다.

이러한 홍차산업의 발달은 커피산업의 몰락 이후이다. 처음 스리랑카를 차지한 영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커피재배였다. 스리랑카에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825년 조지버드라는 영국인의 감귤 농장이며 캔디와 누와라엘리아 사이에 있었다. 후일 커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대단위 커피 농장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특히 그로체스터의 유명한 바텐더 존 웨슬리와 그의 조수 화이트 필드가 커피를 대중음료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후,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는 황금을 안겨주는 보물처럼 인식되었다.

스리랑카의 6대 총독이던 에드워드 번즈는 그의 부하 스커너 대령에게 캔디에서 누와라엘리아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지시, 대령으로 생산된 커피를 운송할 도로를 만들게 했다. 이 길은 수많은 스리랑카 사

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이 만들어 낸 아픈 역사의 길이었지만 영국인들에게는 황금을 안겨 주는 길이기도 하였다. 늘 이러한 역사의 인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길을 지나며 느낀 참담한 마음은 무엇 때문인가.

한편 스리랑카에 커피 재배가 기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식물학자였던 투아이테스 박사다. 그는 잘스 다윈과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인물로 5대 총독인 그레고리 총독에게 붉은 버섯 균이 창궐할 것이며, 결국 버섯 균은 커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나무가 폐사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비판자라고 비난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커피 재배에 손을 떼고 식물원 일에 매진해 커피 대신 심을 수 있는 작물을 기나나무와 차나무를 권장했다. 얼마 후 그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고, 많은 커피 재배 농장은 몰락하고 말았다. 지금도 스리랑카 어디에서나 쉽게 커피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길가에 늘어놓은 커피공을 종종 볼 수 있다. <계속>



초기 영국인들이 만든 방갈로, 휴식을 위한 공간이면서 차밭을 관리하던 곳으로 전형적인 고지대 차밭이다.



건조하기 위해 늘어놓은 커피공들, 커피는 한때 스리랑카의 보물이기도 했다.

해발 1700미터 고산지 대규모 차밭 즐비 차나무 사이 무릉가나무 그늘·영양분 공급

이곳은 분명 별천지다. 낮은 기온 탓인지 밤사이 내린 이슬이 보석처럼 영롱하다.

이 호텔 주변에는 사방 어디에나 영국인들이 조성한 대규모 차밭이 있다. 해발 1700m에 자리한 고지대 차산지, 바위 사이에 자라는 차나무는 건실하다 못해 기품을 친 듯 번들거린다. 건넌편 산등성이까지 온통 차밭이나 차밭 속에 호텔이 있는 셈이다. 등성등성 차나무 사이에 심은 무릉가나무가 그늘과 영양분, 물을 공급해 준다. 키 큰 무릉가나무 때문인지 제법 운치가 있다. 푸른 차밭 사이로 차를 따는 파피 여인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는 그림처럼 가물거린다. 이곳에서 후나스 차가 생산된다는데 초입에 있던 차 공장은 한산해 보였다.

최근 만들어진 캔디 지역의 어설피든 저지대 차밭과

라도 차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디를 보아도 허술한 구석이 없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스리랑카에 차를 옮겨 심은 것은 영국인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실험과 노력을 통해 스리랑카의 실론 차를 만들었으며, 홍차라는 색다르고도 새로운 차의 신기원을 열었다. 홍차는 영국인 일상생활에 더없이 좋은 변화와 풍요한 부를 가져왔다. '황금의 술'이란 홍차의 별호는 덩블라, 우와, 누와라엘리아 지방의 농장주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들에게 부를 안겨준 신비한 오렌지빛 차는 발에서 나는 황금이었다.

홍차의 성공은 기실 1842년 커피산업이 몰락한 후 랍보다 지역에 차나무 재배를 시도한 메슬리와 웰스의 실험정신이 실마리를 열었다. 이후 '차밭에서 직접

홍차의 발전은 커피산업 몰락 이후 기후 맞춰 대체한 차나무에서 비롯

육경신도통으로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천하대도를 얻어 도통군자 일류스승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운수 대통 및 타심통 용맹정진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로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장수 비법과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타심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은 심의 근본인 자지와 오시에 생명의 정안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부처님을 모셔도 정안을 하여야 사물이 인도되어 우리 수행자들도 경신일날 타심통과 마음의 정안을 안하면 경성성불이나 경성득도가 되지 않고 하성세월을 하다가 사람 몸밖은 도리를 못한채 한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준 도법으로 만세에도 가버히 전하지 않고 천고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년이 시작되므로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며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하며 지도는 움직이나 멀리지 않게 전하는 것이며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가 아니고는 국교이나 인공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육신이나 팔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관절과 수족,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해달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수행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전생병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중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집신과 귀신에 병의제도법 특별 기도인 것이다.

◆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밀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육주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타심통 법회에는 고시에 자신이 없거나 사대가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통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해원상생 도통하는 건강, 특별 기도 성취하는 타심통 기도인 것이다.

● 부처님 열반 7일전에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게서 비천으로 이어진 부자되고 견성하여 불법을 지키는 비밀의 주문송의 비밀장을 그대는 아시는가. 돈부주돈송을 드리며 타심통 법회에 해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해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해명과 성품이 홀로 갈라져 해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경신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정정수를 마시어 고열인 당뇨, 살이 빠지고 오정육보가 편해지는 곳

● 입제 : 양력 2008년 3월 20일(음, 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3월 21일(음, 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객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정정수를 마시어 고열인 당뇨, 살이 빠지고 오정육보가 편해지는 곳

● 입제 : 양력 2008년 3월 20일(음, 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3월 21일(음, 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객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정정수를 마시어 고열인 당뇨, 살이 빠지고 오정육보가 편해지는 곳

● 입제 : 양력 2008년 3월 20일(음, 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3월 21일(음, 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객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정정수를 마시어 고열인 당뇨, 살이 빠지고 오정육보가 편해지는 곳

● 입제 : 양력 2008년 3월 20일(음, 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3월 21일(음, 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객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정정수를 마시어 고열인 당뇨, 살이 빠지고 오정육보가 편해지는 곳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정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